



# 다산과 남강의 교육사상

-유배지에서도 구국애민의 정신으로-

이 남 호  
부산교육대학교 강사

1. 머리말
2. 유배지에서 꽃핀 다산의 교육사상
3. 남강의 민족교육 사상
4. 맺는 말



# 다산과 남강의 교육사상

-유배지에서도 구국애민의 정신으로-

이 남 호

부산교육대학교 강사

## 1. 머리말

자식 교육문제와 백성교육의 문제는 다산 정약용(1762~1836)시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에 와서도 부모와 교육계가 슬기롭게 풀어야 할 화두이자 숙제이다. 다산은 1801년 신유사옥으로 유배되어 18년간의 유배생활을 하면서도, 서간(書簡)과 가계(家誡)를 통한 자식교육과 『목민심서』에서 백성을 위한 교육개선사상을 펼친다. 편지와 가훈 그리고 『목민심서』의 교육영역 편을 통해서 다산의 교육사상을 살펴볼 때,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낙망하여 함몰되지 않고 자식에 대한 희망과 목민관들의 애민 의식을 고취하는 위대한 정신을 배우게 된다. 유배지에서 이룩한 다산학(茶山學)은 광범위하다. 본론에서는 다산학 가운데 유배지에서 쓴 서간과 가계에서 원격교육형식의 가정교육의 일면들을 살펴보고, 『목민심서』에 나타난 교육개선사상을 알아봄으로써

현대교육에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조선조 후기 유학사상에 서학이 유입되던 격동의 시기, 서학에 접한 남  
인들을 노론이 공격하면서 그 당쟁의 와중에 다산은 유배를 당하게 된다.  
그 이후로도 그칠 줄 모르는 당쟁과 정쟁 그리고 주변국들의 국권 침탈  
로 인해 조선은 한일합방의 경술국치를 당하게 되고, 나라를 되찾고자 민  
족 독립과 광복을 외치던 선열들은 아무런 죄 없이 유배생활과 감옥행과  
의로운 순국을 하게 된다. 일제치하를 벗어나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  
고 살아보고자 했던 우리의 조상들은, 멀리 해외에서나 중국 등지에서 조  
국의 광복을 위해 투쟁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으  
로 국권을 회복하여, 일류국가의 반열에 서고자 염원했던 교육구국의 뜻  
을 펼친 민족독립운동의 선구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남강 이승훈  
(1864-1930)은 술선수범하는 교육자로 기려진다. 여기에서 다산과 아울  
러 남강의 교육사상 재조명의 의의는, 시대는 다르지만 유배생활을 했던  
두 인물의 구국애민의 교육사상과 그 실천모습을 탐구함으로써 가까이  
는 가정교육에서부터 원대한 웅지를 펼치는 민족교육에 이르기까지 그 뜻을  
이룬 두 분의 높은 뜻을 되새기려는 데에 있다.

## 2. 유배지에서 꽃핀 다산의 교육사상

한 많은 유배지에서도 편지를 통한 자식교육과 『목민심서』에서 애민  
사상으로 나타나는 교육개선의 의지에서, 우울하고 절망적인 현실에서  
도 꿈을 가꾸며 좌절을 극복하는 다산 정신의 위대함을 볼 수 있다. 유  
배 초기의 비판과 풍자의 경향이 나타나는 다산의 시 한편(『여유당전  
서』, 김봉남, 2006: 148)에서는, 조선 정치권력의 모순에 대한 근본적

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가 겪은 불행은 조선의 불행이자 곧 백성들의 불행이라고 생각하였다.

「情懷를 펼침」	「遺興」
사소한 일로 편당지어 어지럽게 싸우니	蠻觸紛紛各一偏
객창에서 생각함에 눈물이 줄줄 흐른다	客窓深念淚汪然
산하는 웅색하여 삼천리에 불과한데	山河擁塞三千里
이백년을 어지럽게 싸웠도다	風雨交爭二百年
수많은 영웅들이 슬프게 꺾이었는데	無限英雄悲失路
어느 때나 형제들은 재산 다툼 부끄러워할까	幾時兄弟之爭田
만약 만곡의 은하수로 깨끗이 씻어낸다면	若將萬斛銀潢洗
상서로운 날의 서광이 온 천하를 비추리라	瑞日舒光照八埏

다산은 조선 건국 이래 200여년의 세월동안 권력을 잡기 위해 서로 편당을 지어 정쟁을 일삼아 온 사대부들의 행위를 강하게 질타하였다. 이어서 ‘만곡의 은하수로 깨끗이 씻어낸다면’에서는 앞으로의 긴 유배 생활동안의 저술들에서 토로할 구국애민의 염원들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읊은 듯하다. ‘상서로운 날의 서광이 온 천하를 비추이도록’ 이라 함은 궁극적으로는 지배층의 애민의식 발현 또는 그들의 선정을 바라는 뜻이 담긴 시구일 것이다.

#### 1) 서간과 가계에 나타난 자식교육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여 자식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끊임없는 노

력을 기울여 온 우리 민족은 예나 지금이나 자식을 위한 사랑의 표현으로 가정교육을 시켜 왔다. 다산 역시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이 자식의 교육에 달려있다고 믿고 이를 중요시 하였다. 다산이 추구한 교육적 이상은 개개인의 철저한 수양과 자주적 인격을 완성하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실학적 교육사상이다.

현대인들이 자식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음이다. 자식의 인격형성 책임을 가정에서의 교육보다 학교교육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다산의 자식 교육방법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다산은 6남 3녀를 낳았으나 4남 2녀는 요절하고 2남 1녀만 성장하였다(김상홍, 1998: 296). 다산은 살아남은 자식에 대한 사랑과 기대가 컸다. 그러나 다산 자신의 유배로 인하여 자식들이 벼슬길에 나갈 수 없는 폐족 신분이 되었다. 유배죄인 다산으로 말미암아 폐족이 된 자식들이 겪은 충격과 방황은 실로 우심했다. 다산은 이를 짐작하고 유배지에서 편지를 통한 자식교육에 심혈을 기울인다.

폐족일수록 학문에 매진할 것을 강조한다. 다산은 자신의 유배로 인하여 자식들이 폐족이 된데 대하여 애통함을 느꼈으나, 학문에 정진해야만 좋은 가문과 결혼 할 수 있고 금수를 면할 수 있다면서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경전 읽기를 강조한다.

내가 너희들의 뜻하는 바를 보아하니, 문자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참으로 하나의 비천한 노예처럼 되려고 그러느냐? 청족일 때에는 문자를 하지 않아도 혼인도 할 수 있고 균역도 면할 수 있거니

와, 폐족이 되어서 문자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학문을 하지 않고 예의가 없으면 금수와 다를 것이 있겠느냐. 폐족 중에 왕왕 기재들이 많은데, 이는 다름이 아니라 과거 공부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니, 절대로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하여 스스로 좌절하지 말고 경전에 힘과 마음을 써서 책 읽는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를 간절히 빌고 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지난해 10월 1일에 입은 것이니, 어찌 견딜 수 있겠느냐(『여유당전서』, 김상홍, 2008: 117).

폐족 이전보다 훌륭한 가문으로 중흥되기를 기대하며, 그 방법은 독서뿐이라고 하여 학문에 전념하기를 거듭 강조한다. 과거에 응시할 수 없는 아들들이지만 과거 공부를 초월한 성현의 말씀이 담긴 경전공부를 즐겨하여 인격을 닦으면, 후손들은 그 영향 아래 언젠가는 벼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니 끊임없이 독서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너는 지금 폐족인데 만일 그 폐족의 처지를 잘 대처해서 본래의 가문보다 더 완호하게 한다면, 또한 기특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 폐족의 처지를 잘 대처한다 함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가. 그것은 오직 독서하는 것 한 가지뿐이다. 이 독서야말로 인간의 제일은 깨끗한 일로서 호사스런 부호가의 자제는 그 맛을 알 수 없고 또한 궁벽한 시골의 수재들도 그 오묘한 이치를 알 수 없다. 오직 벼슬아치 집안의 자제로서 어려서부터 듣고 본 바가 있고 중년에 재난을 만난 너희들 처지와 같은 자라야 비로소 독서를 할 수 있는 것이

다. 이는 저들이 독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뜻도 모르고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은 독서라고 이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대 이상 경험이 없는 의원에게서는 그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문장 또한 그러하다. 반드시 대대로 글을 하는 집안이어야 문장에 능할 수 있는 것이다(『여유당전서』, 김상홍, 2008: 119).

위의 편지를 강진에서 쓴 것이 1802년 12월 22일인데, 폐족이 된지 1년 10개월여이고, 당시에 장남 학연은 19세이고 차남 학유는 16세이다. 아직 어린 나이이지만 폐족이 되기 전의 가문보다 더 완전하고 좋은 가문으로 만들어 나아가기를 기대한 것이다.

재난을 만난 처지에 대해 낙망하지 않고, 오히려 미래를 대비하여 독서에서 양식을 쌓는 참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이다. 다산은 사랑하는 자식에게 독서를 하는데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세세히 알려주고 있다.

요즈음 한 두 젊은이들이 원·명 때의 경조부박한 망령된 사람들이 가난과 괴로움을 극한적으로 표현한 말들을 모방해 절구나 단울을 만들어 당대의 문장인 것처럼 자부하며 거만하게 남의 글이나 옥하고 고전적인 글들을 깎아내리는 것은 내가 보기에 불쌍하기 짝이 없다. 반드시 처음에는 경학공부를 하여 밑바탕을 다진 후에 옛날의 역사책을 섭렵하여 옛 정치의 득실과 잘 다스려진 이유와 어지러웠던 이유 등의 근원을 캐볼 뿐 아니라 또 모름지기 실용의 학문, 즉 실학에 마음을 두고 옛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구했던 글들을 즐겨 읽도록 해야 한다. 마음에 항상 만백성에게 혜택을 주어



야한다는 생각과 만물을 자라게 해야겠다는 뜻을 가진 뒤라야만 바야흐로 참다운 독서를 한 군자라 할 수 있다. (『여유당전서』, 박석무, 2003: 40).

다산은 이처럼 독서를 하는데 있어서, 실용의 학문을 염두에 두고 옛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구했던 책을 즐겨 읽기를 권했으며, 고전과 우리나라의 옛일을 기록한 글들을 읽어 식견과 안목을 넓혀야 한다 하였다. 나중에 당대 시인이 된 학연에게 다산은 오늘날의 시는 마땅히 두보의 시를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치며, 시대를 아파하고 세속을 분개하는 내용이 아니면 시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만물을 자라게 해야겠다는 뜻을 가진 뒤라야만 독서하는 가치가 있으며, 뜻이 세워져 있지 아니하고 학문은 설익고, 위정자를 도와 민중에게 혜택을 주려는 마음가짐을 지니지 못한 사람은 시다운 시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니, 그 점들에 힘쓰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정약용, 2008: 53).

너희들은 집에 책이 없느냐. 재주가 없느냐. 눈과 귀가 총명하지 못하느냐. 무엇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려 드는 것이냐. 폐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냐. 폐족은 오직 벼슬길에만 끼리는 자가 있을 뿐, 폐족으로서 성인이 되고 문장가가 되고 진리를 통달한 선비가 되기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이다. 거리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크게 나온 점이 있으니, 그것은 과거의 누가 없고, 또 빈곤하고 궁약한 고통이 심지를 단련시키고 지력을 개발해서 인정과 몰태의 진실과 거짓을 두루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선배에 율곡 같은 분은 어버이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괴로움으로 몇 해를 방

황하다가 마침내 한번 돌이켜 도에 이르렀으며, 또한 우리집안의 우담 정시한 선생도 세상의 배척을 받고서 더욱 그 덕이 진보되었으며, 성호(이익)께서도 집안에 화를 당한 이후로 이름난 유학자가 되었으니, 그분들이 탁월하게 수립한 것은 권세를 잡은 부호가의 자제들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이것은 너희도 일찍부터 들어오지 않았으나, 폐족 중에 재주 있고 걸출한 선비가 많은데, 이는 하늘이 폐족에게 재주 있는 사람을 내어 폐족을 후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달하려는 마음이 학문하려는 마음을 가리지 않으므로 책을 읽고 이치를 연구하여 능히 진면목과 참다운 골수를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평민으로서 학문을 하지 않는 자는 다만 용렬한 사람이 될 뿐이지만, 폐족으로서 학문을 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패루하고 비루하여 가까이 할 수 없는 자가 되어 세상의 버림을 받게 된다. 혼인길이 막혀서 천민에게 장가들고 시집가게 될 것이요, 한 두 대가 지나서 물고기 입이나 강아지의 이마를 하게된 자녀가 나오게 된다면, 그 집안은 영영 끝장나는 것이다(『여유당전서』, 김상홍, 2008: 121).

입에 쓴 보약이 약효를 보듯이 인생에서의 역경을 잘 헤쳐 나오면 기회가 열리기도 한다. 다산은 자식들에게 절망 속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새 삶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역경과 시련, 절망과 좌절에서 딛고 일어서기를 기대하고 있다.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서 갈고 닦은 학문은 오히려 참사람 되는 든든한 양식이 된다. 폐족으로서 벼슬은 못하지만 성인이 되고 문장가가 되고 진리를 통달한 선비가 될 수 있는 길은 도리어 크게 나은 점이 있다면서 폐족으로서의 장점을 이용할 수 있는 포부를 가지라는 아버지 다산의 가르침이다. 절망을 극복하

고 우뚝 일어서라. 폐족이 되어 학문을 하지 않으면 세상의 버림을 받게 되고 혼인길이 막혀서 천민에게 장가들고 시집가게 될 것이요, 한 두 대가 지나면 물고기 입이나 강아지의 이마를 한 자녀가 나오게 되어 그 집안은 영영 끝장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가문의 부흥을 위해 학문에 정진할 것을 호소한 것이다.

옛날의 어진 임금들은 사람을 쓰는 데 있어 적시적소에 쓰는 지혜가 있었다. 눈이 먼 소경은 음악을 연구하게 하였고 절름발이는 대궐문을 지키게 하였고 고자는 후궁의 처소를 출입케 하였고, 곱사, 불구자, 허약하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적당한 곳에 적절하게 용무를 맡길 수 있었으니, 이 점에 대하여 항상 연구하도록 하여라. 집에 사내종이 있으면서 너희는 항상 말하길 힘이 약해서 힘든 일을 시키지 못한다 하였는데 이는 너희들이 난장이에게 산을 뽑아내라는 식의 가당치 않은 일을 맡기고 있었기 때문에 힘이 약한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여유당전서』, 탁현숙, 2007: 26).

다산은 자식들에게 준 가계에서 인간 개개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살피 사람마다 적의한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면, 모든 일이 순리대로 될 것이라며 가복에게도 힘에 알맞은 일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 사람 쓰는 도리를 가르친다. 아버가 부재한 집에서 아들들이 가장의 역할을 대신 해야 했던, 다산의 자식들은 멀리서나마 자상하게 훈시하는 부친의 마음을 잘 받아들였다.

옛날부터 화를 당한 집안의 자손들은 반드시 놀란 새가 높이 날고

놀란 짐승이 멀리 도망 하듯이 도망하여 더 멀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 지 못할까 걱정하였는데, 이렇게 하면 결국 노루나 토끼처럼 되어 버리고 말 뿐이다. 대체로 부귀한 집안의 자손들은 반드시 재난이 화급한데도 아무런 걱정이 없는 반면에 몰락하여 버림받은 집의 가족들은 태평한 세상인데도 언제나 걱정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이는 그들이 그늘진 벼랑이나 깊숙한 골짜기에 살다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함께 지내는 사람들도 모두가 버림받고 벼슬길이 막혀 원망하고 지내는 부류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듣는 것이라고는 모두 우월하고 허탄하고 편벽되고 비루한 이야기들뿐이니 이것이 바로 영원히 가버리고 돌아보지 않게 되는 이유이다. 진실로 너희들에게 바라노니, 항상 심기를 화평하게 가져 지금 벼슬길에 있는 사람들과 다름없이 하라. 그리하여 아들이나 손자의 세대에 가서는 과거에도 마음을 두고 경제에도 정신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늘의 이치는 돌고 도는 것이라서 한 번 쓰러졌다 하여 결코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하루아침의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서둘러 먼 시골로 이사가 버리는 사람은 천하 무지렁이로 끝나고 말뿐이다(『여유당 전서』, 김상홍, 2008: 118).

위의 두 아들에게 주는 가계에서 다산은 언젠가는 복권이 되어 폐족의 굴레를 벗고 아들과 손자가 과거에 응시할 수 있다는 꿈이 있었다. 벼슬길에 있을 때는 조금 떨어져 비켜 서 있고, 재야에 머물수록 한양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살아야 한다. 보통 혼탁한 세상에 환멸을 느껴 저 한 몸 깨끗이 하자고 깊은 산골로 들어간다면 이는 결국 후손을 노루나 토끼 같은 무지렁이 백

성으로 내모는 일이다. 운명의 회복은 일정하지 않으므로 그때그때 내가 가야 할 바른 길을 갈 뿐이다. 세상사에 부딪히다가 한 번 쓰러졌다 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므로 폐족이 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도망하듯이 도망하여 멀고 깊은 시골로 떠나버리면 천한 백성이 되어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대책 없는 시골 행은 반대했다. 다산은 유배 7년째가 되던 1807년(46세)에 쓴 시에서 다음과 같이(『여유당 전서』, 김상홍, 2008: 119) 격려했다.

집안의 흥망이란 굴러가는 바퀴 같은 것	人家廢興如轉輪
연장 갓춘 후 때 기다리면 쓰일 날 왜 없겠나?	臟器待時那無用
문자만 잘 익혀서 사해를 밝게 하라	但令文字照四海
구속된 삶도 고관대작도 그 모두가 꿈이란다	桎梏軒冕都如夢

집안의 흥망은 굴러가는 수레바퀴와 같은 것이어서 평소에 실력을 갖추어 놓으면 반드시 쓰일 날이 있다고 격려했던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희망과 꿈을 버리지 않도록 교육한 것이다. 다산의 장남 학연은 당대에 이름을 떨친 시인으로 활동하였으나 손자 대림은 연천현감을 지냈고, 증손자인 대유는 고종 때 과거에 급제하여 다산에 이어 홍문관 교리를 지내게 됨으로써 다산 가계에서 열 번째로 옥당에 오르고 승지가 된다(최효찬, 2005: 223). 이로써 폐족 이전의 가문으로 회복되는 효손이 나온 것이다. 차남 학유는 『농가월령가』를 지은 시인으로 이름을 떨친다. 『농가월령가』는 농촌생활과 관련된 어휘가 풍부하게 나타나며 농촌생활의 부지런한 활동을 실감나게 제시하였고 우리말 노래로서 농업기술의 보급을 처음 시도한 작품이었다. 추사 김정희의 제자 이상적

(1804-1865)은 정학연이 운명하자, “문장은 능히 나라를 빛내고 의술은 나라를 치료할 만하다”고 한 것을 보면 장남 학연은 문장과 의술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산이 학연에게 의원노릇은 그만두라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되어 나라를 치료할 만하다고 평가받은 것을 보면, 다산 자신이 의학 지식에까지 정통했던 것처럼 그 아들도 아버지의 재주를 이어받았고, 아마도 호구지책과 함께 그 스스로 의원으로서의 적성이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

이상과 같이 다산은 후일을 위하여 서간과 가계로 자식들을 치열하게 교육시켰다.

## 2) 목민심서에 나타난 교육개선 사상

다산은 16세에 성호 이익(1681-1763)의 학행이 순수하고 돈독함을 듣고 『성호사설』을 읽고 준칙으로 삼아 경전공부에 뜻을 두었다. 이로 부터 다산은 조선의 교육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교육 사상의 토대를 다졌던 것으로 보인다. 다산 나이 40세부터 18년간의 긴 유배생활 동안, 초기에는 사서육경에 대한 경학연구서232권의 저술을 마쳤고, 후기에는 경세 학에 심혈을 기울여 흔히 일표이서라고 불리는 『경세유표』, 『목민심서』, 『흙흙신서』 등의 실학 관련 500여권이 넘는 방대한 저서를 완성하였다(박석무, 2005: 17). 육경과 사서에 대한 주해는 넓은 의미의 수기(修己)에 속하며, 일표이서는 치인(治人)에 속하는 저술이라고 볼 수 있다(윤사순, 1996: 417). 다산의 나이 57세로 해배되던 해인 1818년 『목민심서』를 저술하였다. 『목민심서』는 17년간의 다산의 관직생활의 경험과 유배지에서 본 백성들의 어려운 사정을 목도하

고, 올바른 목민관의 선정을 기원하며 저술되었다. 『목민심서』는 지방 행정의 일선책임자인 수령들의 행정지침서로, 고을에 부임하는 날부터 퇴임할 때까지 지켜야할 사항들을 기록해 놓은 책으로(송재소, 2005: 495), 관리들의 폐해를 제거하고 지방행정 쇄신을 위한 일종의 제안서이다. 이 제안은 당시 참담한 사회의 실상에서 벗어나 부국양민을 이루려는 그의 사상이 결집된 것인데, 예전편(禮典編) 육조(六條)에 그의 교육개선사상이 표현되고 있다.

교육개선을 논한 『목민심서』의 예전편에는 교육영역을 제사(祭祀), 빈객(賓客), 교민(教民), 흥학(興學), 변등(辨等), 과예(課藝) 등 6분야로 다루고 있다. 특히 흥학조(興學條)에서는 교육진흥의 지침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① 옛날에 소위 학교란 곳은 예(禮)를 배우고 악(樂)을 배우던 곳이다. 이제 예악이 모두 무너졌으니 학교의 가르침이 단순히 독서에만 그치고 말았다. ② 문학이란 소학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 즉, 후세에 와서 소위 흥 학이란, 소학에서 하던 것과 같은 것인가. ③ 학(學)이란 스승에게서 배운다는 것이다. 스승이 있는 연후에 학이 있는 것이니, 오랫동안 덕을 닦은 사람을 초빙하여, 사장(師長)이 되게 한 연후에 하규를 논의 할 수 있을 것이다. ④ 학당의 지붕을 수리하며 쌓아주는 것을 잘 보살피고 서적을 널리 비치하는 것도 또한 현명한 목민관으로서 유의해야 할 것이다. ⑤ 단아 방정한 이를 뽑아서 스승이 되게 하고 예로서 대우하며 그 엄치를 기르게 할 것이다. 『목민심서』를 통하여 이와 같이 논의된 다산의 교육적 입장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교육개선의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목민심서』에서는 교육을 단순한 지식인 육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받은 사람은 사회에 참다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실용적인 교육관을 제시하고 있다. 다산은 전인적 인격을 논함에 있어서도 수기와 치인을 별개의 둘로 나누지 않고, 수기치인(修己治人)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즉 수기치인의 묘한 합치로 전인적 인격이 형성됨을 의미한다.

다산은 ‘목민관은 백성을 교화할 따름이다’ 라고 하면서, ‘전산(田山)을 고르게 하는 것은 장차 가르치기 위한 것이요, 부세(賦稅)를 균형하게 하는 것도 장차 가르치기 위한 것이요, 관을 설치하고 목민관을 두는 것도 장차 가르치기 위한 것이요, 벌을 밝히고 법을 신칙하는 것도 장차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제반 정책이 제대로 닦아지지 않은 것은 가르침을 일깨울 틈이 없었던 것이니, 이는 바로 수백 년 동안 잘 다스려진 바가 없는 이유인 것이다.’ 라고 하여 교민(敎民)을 목민관의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로 파악하였다. 그중에서도 다산은 최우선적으로 부국양민을 그의 교육사상으로 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개선사상은 교육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생하는 생각이다. 다산은 임금에 대신하여 지방의 민을 교육하는 수반인 관찰사, 목사, 부사, 현감, 현령, 병사, 도사 등이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론에서는 다산의 저서 『목민심서』에 나타난 교육개선사상을 탐구하여 현대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다산의 『목민심서』에 나타난 교육관련 부분의 분석결과에서 도출된 교육개선사상의 내용은 교과영역에서는 부국양민을 위한 교육복지, 국학강화, 수신치민이다. 생활영역에서는 양민화 교육을 위한 화민성속, 향례부흥이다(정영, 2004: 53-85).



### (1) 부국 양민 교육(富國良民教育)

부국 양민 교육은 첫째, 교육복지의 민생교육을 의미한다. 다산의 『목민심서』에서 부국양민하게 하는 교육에서 복지교육관은 애민육조의 자유편과 예전육조의 흥학편에 나타나 있다. 다산의 복지교육은 인간의 내적인 교육욕망 요인에 따라 생존권 및 학습권, 외적인 교육필요 요인에 따라 행정지원권 및 교육권 등의 면으로 규정한다. 궁극적으로 다산의 복지교육은 생존권 의미에서 ‘고아를 흥양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수령인 사장(師長)의 교육권 의미에서의 흥학 즉 ‘스승의 가르침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된다. 산은 수기하여 치인하는 수령인 사장은 ‘사방의 고아를 내 자식처럼 거두어 기르고 교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복지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 그 복지교육을 위한 방법은 ‘아껴 쓰기의 생활화로서 힘자라는 대로 즐겁게 베푸는’ 것이었다.

다산은 당시의 모든 것이 병통이라 여겼다. 이것은 백성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직분이 있는 수령이 백성교육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당시 부패한 혼돈의 사회에서 아껴 쓰기의 생활화로서 부국은 물론이요 백성의 부를 함께 추구하고자 한 것은, 목민관이 마음만 먹으면 실현가능한 평범하면서도 획기적인 교육개선사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아껴 쓰기의 생활화로서 있는 사람과 윗사람이 먼저 힘껏 즐겁게 베푸는’ 복지교육을 주장하는 다산의 교육개선사상은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교육입국이 되도록 한 미래를 내다본 선구적 사업으로서 특기 할 만 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다산의 복지교육사상은 만민의 교육지도자인 목민관이 솔선수범함으로써 부국안민을 이루도록 하

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교육복지의 민생교육은, 사민(四民)을 구직(九職)으로 분류하여 각직마다 전문성을 제고하고 우수한 자에게 상과 직분도 주어 만민이 각자의 처해진 입장을 살려서 부를 축적하게 하는 천직의 전문화를 도모하였다. 특히, 실업을 융성시키려면 목민관은 응당 만민의 직업교육 즉 민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다산은 지하자원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농사 이외에도 광산 및 공업의 국가관여가 있어야 만민이 국가를 믿을 수 있으며 실업을 증대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다산의 실제 의도는 양난의 발생과 한발로 인한 사회의 혼란으로 한량처럼 놀고먹는 유생들에게, 기술인으로 전업시켜 일을 하도록 함으로써 부국양민을 기도했던 것이다.

부국 양민 교육은 둘째, 국학강화의 애국교육을 의미한다. 당시의 실제교육내용에는 애국에 필요한 예약 형정을 경시한 결과, 과거에 요형히 합격하여 백성을 가르치는 수령의 지위에 부임해도 실제의 업무조차 몰라서 간사한 아전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는 폐단이 많았다. 조선시대 목민관의 임무에 대한 규정으로는 조선왕조 최초의 통일법전인 경국대전 권1 이전 편에서 일곱 가지 항목, 즉 수령칠사로서 목민관의 업무를 규정지어 놓았다. 그러나 고을의 수령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에 대해 자율권을 가지고 독자적 판단을 요구 받았다(박병현, 2008: 57). 그 외에도 이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관은 젊어서 시(詩), 부(賦)나 배우고 무관은 활쏘기나 익힌다. 그밖에 배운다는 것은 도박이나 기녀를 끼고 노는

일과 술 마시는 일뿐이다. 그중에서 위로는 태극음양의 이치가 어머니 하도낙서의 수가 어머니 하는 궁극한 학설을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인간만사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뿐이다. 오직 활 쏘는 것은 실무이다. 그러나 역시 수령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실무에는 관계 없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천리의 먼 곳에 나가서 갑자기 못 아전과 만민의 위에 우뚝 앉아서 평생에 꿈도 꾸지 않던 일을 담당하게 되니, 일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수령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수치라고 생각하여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내용도 묻지 않고, 모든 명령도, 지시도, 물 흐르듯 척척 결재의 수압을 해 주곤 한다(『목민심서』, 제5장 이전, 남만성 역, 1970: 327).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다산은 국학이라 할 수 있는 국사, 국문학, 국토지리, 국방, 국세 등 전 분야를 포함하여 과거를 실시하려고 하였다. 다산은 이러한 교과들에 대하여 서적들을 준비하고, 과거에 국학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문사는 물론이고 무사에게도 외래 학문과 함께 반드시 이수하게 하는 국학강화의 애국교육은, 미래의 지도자가 될 과거응시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국학의 중요성을 예견하는 선견지명의 정책이었다.

부국 양민 교육은 셋째, 수신치민의 교육입국을 의미한다. 다산의 『목민심서』는 수령이 교육으로서 수기치인 하는 교육입국의 장전이다. 수신 치민하는 입국교육은 『목민심서』 예전조의 변등에서 다음 인용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충명하고 기억력이 좋은 동몽은 따로이 가려 뽑아서 가르칠 것이다.’ ‘문학의 지식과 성향은 그 시작에 있지 않음이 없다. 8세에 입학하여 집주를 집가로 알고 잘숙을 줄수로 알면, 이는 세상에 태어난 자의 선입견이 되어 평생 고질로서 골수에 박혀 버린다. 이로부터 나아가 증씨사략·소미통감·백련구·격몽시를 읽고, 이렇게 가다보면 고칠 약이 없다. 오직 12세 이하의 총기가 뛰어난 아이는 아직도 고칠 여지가 있으니 거두어서 과예(課藝)할 것이고, 나이 든 사람은 마땅히 습속을 따라 이끌 것이다. 어린이는 실심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니, 조금이나마 성취할 가망은 어릴 때에 있고, 수염이 짙고 뼈가 굳어진 자는 비록 손을 녹이고 머리가 탈 정도로 가르치더라도 미칠 바가 없다(『목민심서』, 정영, 2004:80).

위에서 특히 다산은 초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다산이 총기가 뛰어난 아이에게 과예를 권장한 것은 현대교육에서의 영재교육과도 비견되는 것이다. 다산의 교육개선 사상은 자라나는 동몽에게 수신치민의 능력을 배양하여 부국안민 하게 하는 교육입국사상이다.

## (2) 양민화 교육(良民化教育)

양민화 교육은 첫째, 화민성속(化民成俗)의 생활교육을 의미한다. 다산의 목민심서는 모든 백성을 양민화되게 하려는 것이었으니, 예도 무너지고 악도 무너짐을 막기 위한 교육개선이란 화민성속의 덕행을 중시한 생활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화민성속이란 백성을 교화해서 풍속을 이룬다는 말이다.

정조21년에 『오륜행실도』를 증수하여 군현에 반포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였지만 발간한 수량이 미흡하였다. 이것은 『목민심서』 예전 조, 교민에서 볼 수 있다.

삼가 생각하건데, 『오륜행실도』는 이미 국문으로 번역하였고 또 그림이 있다. 이것은 옛날 중국 고대의 태평성대 때 상형(象刑: 형벌을 주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널리 백성에게 알려 가르친 것)·상교(象敎: 백성의 교육을 그림으로 하는 것)가 끼친 뜻이니 어리석은 백성은 이에 깊이 감동하고 분발할 것이다. 단 한 부와 책으로 만가에 두루 보이면 한 달을 못 넘기고 모두 닳고 헤어져 다시 읽을 수 없을 것이다. 마땅히 호구 총수를 보아 1백호마다 한 부의 책을 나누어주고 1천호의 읍은 열부를 나누어 주고 1만호의 읍은 1백부를 나누어주어야 곧 두루 미치게 될 것이다. (교생을 선발하여 그로 하여금 강론에 응하게 해도 또한 좋을 것이다)(정영, 2004: 56).

라고 하여 다산은 오륜행실의 덕행을 실제생활에서 실행하는 화민성속의 생활교육을 중요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늘날에도 오륜행실의 덕행 교육을 강화한다면 작금의 생활풍속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양민화 교육은 둘째, 향례부흥(鄕禮復興)의 예의교육을 의미한다. 다산은 향례가 절연된 현실에서 교육내용개선은 향례부흥으로서 장유를 구별하고 귀천을 밝히는 큰 뜻과 즐기되 난잡하지 않고 어울리되 휩쓸리지 않는 오묘한 예의교육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다산은 오륜 또는 오교가 실상은 효제자(孝悌慈)일 따름이라고 하여 부모의 자, 형

제간의 제, 자의 효일뿐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목민심서』 봉공조의 예제와 예전조의 흥학에서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예는 불가불 공손해야 하고, 의는 불가불 결백해야 하는데, 예·의가 아울러 온전하고 온화한 태도로 도에 알맞으면, 이를 일러 군자라 한다’ (정영, 2004: 58).

여기에서 다산은 만민이 귀하게 되는 것은 예의를 실천하는 것뿐이라고 역설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교육의 힘으로 이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 3. 남강의 민족교육사상

남강은 독립운동의 선구자요, 개화기 우리나라 제1의 거상이었으며, 민족학교인 오산학교의 설립자이고, 3·1운동 대표자 33인 중 한 사람이다(김도태, 1950: 131). 10세에 고아가 된 남강은 학업을 중단한 채 생계를 꾸려야 했다. 그는 일터에서의 성실과 정직함으로 자립하게 되어 보부상으로 장사를 시작했으며 정주와 평안도, 황해도 등을 다니며 자연과 지리에 대한 견문도 익히고 여러 사람을 사귀어 나라 안팎의 소식들도 접한다. 이후 유기 공장 경영, 국제무역상, 운송 사업으로 재계의 1인자가 되었으나,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망국의 한을 느끼고 시국의 아픔과 함께 모든 자본권과 경영권을 정리하여 은퇴하게 된다. 1907년(44세)에 헤이그 밀사사건과 고종의 양위 사실을 듣자 그는 개인의 일보다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다

가 그 해 7월 도산 안창호의 연설을 듣고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감동을 받아 단발, 금연, 금주를 단행하고, 민족을 위해서는 교육과 산업의 발전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남강은 이제까지 자기 일신과 가족과 문중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일족이 양반되기를 간구하였으나, 이제야 민족에 대해 각성하게 된 것이다. 전 민족이 일제의 노예가 되려는 이 시기에 민족이 노예가 되면 어느 한 개인이나 한 가족이 양반으로 있을 수도 없다는 점을 크게 깨닫게 된 것이다. 도산의 연설을 듣고 동감하여 결심을 굳힌 남강은 ‘강명익숙’을 세워 신교육을 시작하고, ‘오산학교’를 설립하여 민족운동의 중심인물들을 양성하게 된다. 그 당시는 파벌 직전의 긴박한 국운을 회복시키기 위한 교육 구국운동이 순수 민간인에 의해 전국적으로 일어나던 시기이기도 했다.

#### 1) 유배지 제주도에서의 교육활동

1911년 2월, 남강은 서울로 가다가 일본 헌병대의 검문에서 안중근 의사의 사촌동생인 안명근의 명함을 지녔다는 이유로 검거되어 석 달 가량 갖은 고문을 받았으나 안명근과 관계가 별로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엉뚱한 죄목을 뒤집어쓰워 재판에 회부하였다. 이는 오산학교를 중심으로 커 가는 민족운동의 정기를 말살하려는 책동이였다. 드디어 신흥무관학교 사건을 빙자하여 1년 동안의 제주도 유배형에 처해진다. 남강이 기거하던 곳은 제주도 제주군 조천리에 있는 민가로 그 집 마당 안쪽에 있는 두 평짜리 방 한 칸이다. 그는 이곳에서 역시 유배 중이던 박영효 등과 교류하였고, 제주읍에 나아가 성내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 부설이었던 영흥학교의 교육활동에도 관여하였다. 제주도에서의 남

강은 기독교 사상과 신교육, 새로운 정신을 주민들에게 전하며 교육과 문화사업을 일으켰다. 그 때부터 제주도에서는 새로운 개화가 일어났는데, 한 예로 전국의 사립학교가 1910년에서 4년동안 1973개교에서 1242개교로 3분의2로 축소되었는데, 유독 제주도는 11개교에서 24개교로 늘어나게 되었다. 남강의 유배 당시 제주도에 많은 학교가 설립되고 민족을 생각하는 일꾼들이 생겨난 것도 바로 그의 영향을 받은 때문이라 할 수 있다(이교현, 2001: 66-67). 남강은 1911년 4월말 제주도에 유배되어 그 해 10월에 일제가 날조한 데라우찌 암살 미수사건 소위 105인 사건의 주모자라 하여 다시 서울로 압송될 때까지 약 5-6개월간 제주도에 유배되어 있었으나 영흥학교 교육활동 등의 민족교육운동을 펼친 것이다.

## 2) 오산학교와 민족교육 사상의 전개

일제강점기하 우리 민족 모두가 우리 땅에서 마치 유배당한 처지처럼 되어, 아니 우리 땅이 유배지 보다 못하게 변한 상황에서, 독립운동가와 민족지도자들은 해외나 만주별관에서 그리고 감옥에서도 나라를 되찾으려는 필사적인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특히 남강은 다시는 나라를 빼앗길 수 없다는 나라사랑과 구국의 정신을 인재양성을 통하여 배양하고자 하였다. 그는 오산학교 졸업생들에게 “너희들은 여기를 나오면 해외로 가지 말고 전국에 흩어져서 오산학교를 본받는 많은 학교를 일으키라.”고 하였다. 남강은 오산학교를 단순한 학교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이곳을 적을 물리치는 새로운 참모본부로 생각했던 것이다(김기석, 1964: 117-118).



남강은 1907년 4월 서울의 제중원에서 도산을 만나 신민회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동참을 약속하여 평안북도 책임자로 뽑혔으며 그 후 신민회의 산하기관인 자기회사 사장직과 태극서관의 관장직을 맡아 크게 활약하였다. 특히 1910년 경술국치를 전후하여 도산을 비롯한 많은 지도자들이 망명을 하였으나 남강만은 끝까지 남아 신민회 운동을 이 끌어갔다. 그런데 신민회가 전개한 국권회복을 위한 신교육 구국운동의 기본방침은 ① 국권회복을 위하여는 신교육이 필요함을 계몽하고 ② 관민이 각처에 설립한 학교의 교육목적과 내용이 국권회복에 적합하도록 유도하며 ③ 신민회 정신에 따라 신민회 회원이 직접 학교를 설립하여 모범을 보일 것 등이었다. 따라서 남강은 이러한 신민회의 정신 아래 1907년 12월 24일 평안북도 정주군에 중학교 과정인 오산학교를 창립하였다. 오산학교로 명명된 것은 오산리(五山里)의 동쪽에 있는 취향산, 서쪽의 제석산, 남쪽의 남산, 서남쪽의 천주산, 북쪽의 황성산이 둘러 감싸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강은 개교식에서 7명의 입학생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대한민국 만세를 힘차게 불렀다고 한다.

“지금 나라가 날로 기울어져 가는데 우리가 그저 앉아 있을 수 없다. 이 아름다운 강산, 조상들이 지켜 내려 온 이 강토를 원수인 일본인들에게 내어 맡긴다는 것은 차마 있어서는 안된다. <중략> 충을 드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긴요한 것은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는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르고 있으니 그들을 깨우치는 것이 제일 급선무다. 우리는 우리를 짓누르는 자를 나무라기만 해서는 안된다. 내가 못났으니 남의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오늘 학교를 세우는 것도 후진들을 가르쳐 만분

의 일이나마 나라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오늘 이 자리에 일곱 명의 학생밖에 없으나 이것이 차츰 자라나서 70명 내지 700명에 이르도록 될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힘을 한데 모아서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백성이 되기 바란다.”

이처럼 「민족운동에 이바지하는 재목을 기르고 백성을 교육시키는 교사를 양성」 할 목적으로 오산학교를 세운 뒤 남강은 학교의 시설과 살림을 갖추고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활동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남강을 ‘학교에 미친 사람’이라고까지 하였다. 남강은 오산학교를 설립할 때 「민족의 영광을 바라보는 민족정신, 자신의 덕과 힘을 길러 나라에 봉사하자는 민족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삼아 해를 거듭하여 갈수록 ‘오산학교 자체를 민족정신을 담고 있는 용광로’로 만들어갔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 민족 독립을 이룰 민족운동기를 양성할 민족주의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 길이 당장 충을 들고 일제와 싸우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의 민족운동에 대한 생각은 국민의 근대적 민족의식을 강조한 것이고 민족의 자주역량의 향상이 국가의 독립을 위한 근본임을 말한 것이다. 이것을 알아차린 일제는 민족운동의 요람인 오산학교에 대하여 갖은 방법으로 탄압하였고 심지어 3·1운동이 일어나자 동년 3월 31일에는 오산학교 기숙사와 오산교회를 불질러 전소시키는 만행을 자행하였던 것이다. 남강이 신민회 활동에 기여하여 참여한 것이나 105인 사건과 기미독립선언으로 도합 아홉 해의 옥살이를 한 것도, 동아일보 사장이 되고 민립대학 설립운동에 앞장선 것이나 종합교육계획과 이상향 건설에 심혈을 바쳤던 것도 모두가 그의 일관된 민족주의 사상의 표출이었다(최관경,

251-265).

남강은 1915년 2월의 오산학교 졸업식에서 다음과 같이 학생들에게 훈화를 하였다.

우리가 할 일은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는 일이고, 우리나라를 찾아서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는 해외에 나가는 일도 필요하고 밖에서 군대를 길러 쳐들어오는 일도 필요하다. 또 세계의 여론을 일으켜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이끌어 남의 지원을 받는 일도 필요하다. 그러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일어나 ‘밝고 덕스럽고 힘 있는 사람’이 되기 전에는 이 모든 일이 헛된 수고가 될 것이다.

10년 앓은 병에 7년 묵은 썩이 약이 된다고 하거니와 그 썩이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묵혀야 될 것이다. 나는 무리 학교 졸업생들이 방방곡곡에 흩어져 백성 속에 들어가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의 힘을 길러 민족 광복의 참된 기틀을 마련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여기에서는 민족의식의 고조와 자주 역량의 향상을 위한 민족주의 교육의 목적을 밝힌 것이라 볼 수 있다. 오산학교 교육목표는 단순히 신학문을 가르치는 한 개의 교육기관의 설립 이라기보다는 조국독립을 위한 남강의 원대한 목표에서 탄생한 것이다. 따라서 남강은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민족정신을 심어주는 ‘밝고 덕스럽고 힘 있는 사람’ 되어야 한다는 민족교육진흥 사상을 전파한 것이다. 남강의 둘째 아들 주경이란 어린 학생도 아버지의 하시는 것을 배워 연단에 서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나지 아니하면 개인도 죽고 나라도 망합니

다.”라고 했다 하니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 듣는 사람들이 모두 감동하여 박수를 쳤다고 한다. 남강은 12월 학교교육의 주된 취지를 기독교로 바꾸었다. 이는 기독교의 신앙정신 함양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독교의 개화정신을 받아들일겠다는 뜻도 들어 있고, 학교를 경영하는데 당국의 간섭을 조금이라도 피해보려는 생각도 있었다. 선교사인 나부열(Slacy L. Robert) 목사를 교장으로 모셔 오고 성경과목도 가르쳤다. 나중에 교장이 된 유영모와 조만식은 오산학교의 신앙교육 터전을 완성하였다. 1922년 공포된 신 교육령에 의거하여 1923년 11월에 학교의 기독교 교육 주지는 삭제되고 일반학교가 되었으나 학교 안의 신앙 집회와 기도하는 분위기는 계속되었다.

1930년 광주학생 사건을 오산학교에서 이어받아 만세 운동을 하다가 7명이 구속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체포되기도 하였으며, 1934년에는 원인모를 화재로 본관이 불타버린 일도 있었다. 1942년 일제는 소위 황국신민화교육을 오산이 거부하고 있었기에, 오산학교를 말살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혈맹단을 조직했다는 조작극을 꾸며 교사와 학생 수 백명을 구속했다. 그 사건 뒤에도 일본은 남강 동상을 빼앗아 가고 남강의 묘비명을 깎아냈으며, 일본인을 교장으로 앉히고 1944년에는 학생들을 학도병으로 강제 징용하기도 하였다.

1945년 광복을 맞은 오산학교는 새 희망으로 활기를 띠었으나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은 ‘남강정신’을 말살하려고 하였고 공산주의자인 교장과 교사를 배척하였다. 따라서 오산학교 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교사들은 속속 월남했던 것이다. 1952년 3월 부산에서 ‘오산학교 재건위원회’를 발족하고 1953년 4월 부산에서 개교하였다가

1954년 4월에 학교를 서울로 이전하였다. 2007년 개교 10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고, 현재에도 서울 용산구 보광동 오산중고등학교에는 학생들이 남강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남강은 배우기를 즐겨하였으나 정규학교를 다닌 적이 없고 어릴 때 한문을 조금 배웠을 뿐이다. 그런데 그가 민족의 지도자이자 위대한 교육자라고 불리는 것은 교육현장에서의 실천공행, 그리고 민족교육을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희생하였기 때문이다. 오산의 졸업생이나 남강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 그에게서 배웠다고 하는 것도 그의 인격에서 발하는 의와 사랑과 실천력과 의지, 헌신과 조국애, 봉사정신 등을 배웠다는 것이다. 오산학교 교과과정은 특이한 점이 많았다. 당시 교과과정은 3년제로 수신, 역사, 지리, 산술, 대수, 국가학, 법학통론, 한문, 헌법대의, 체조, 조련 등이었고 이외에도 민족정신교육 시간이 있었다. 이는 통감부 시대의 교육정책 기본 방침인 한국인에 대한 문맹정치, 사립학교 통제 및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공포된 ‘학부령 제23호’의 학교 교과과정과는 비교가 될 수 있었으며 특히 일어를 배우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손인수, 1971: 50). 오산학교 졸업생이자 교사로 봉직한 함석헌은 ‘역사’를 가르쳤는데, 당국에서는 일본 역사를 가르치도록 하였으나 늘 우리나라 역사만을 가르쳤으므로 “저 사람은 경찰서에 가는 것이 일이다”라고 할 정도로 경찰서에 자주 불러 다녔다. 남강의 제자인 함석헌은 남강의 교육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함석헌, 1988: 37-38).

남강이 학교를 운영하는 모양은 마치 터질 구멍을 찾은 화산과 같

아서 있는 힘과 생각과 열정과 재주와 시간과 재산, 한 마디로 해서, 생명 전체를 그리로 쏟았다. 그칠 줄도 모르고 그저 내뿜는 것이었다. <중략> 학교를 경영했다는 말은 들어맞지 않는다. 학교에서 살았다. 그에게 있어서 학교는 집이요, 몸이요, 모든 것을 불살라 바치는 제단이었다.

이때의 오산학교는 학교라기보다는 한 가정이요 도장이요 수련소였다. 설립한 취지부터 학문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나라를 건지고 민족을 개조하기 위한 지도자를 길러 내자는 것이었으므로 선생도 학생도 다 같이 일종의 종교적 사명감 혹은 자부심에 불타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화기가 넘치는 사랑속에 하나로 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엄격하고 규칙적이고 씩씩한 면이 있었다.

무엇보다 두드러진 것은 민족정신이였다. 누구나 다 애국심에 불타고 있었다. 낮에는 시간표대로 학과를 배우지마는 저녁이면 모여 앉아 나라 형편, 세계 정세 등 돌아가는 시국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토론하는 일이 많았다. 이렇게 하는 동안 상식이 늘고 사상의 중심이 잡히는 것이었다.

그 다음은 봉사의 정신을 들 수 있다. 그것은 남강 자신에게서 직접 받는 것이었다. 그는 집 따로 학교 따로가 아니었다. 거의 집을 잊고 있었다. 학교경영을 하느라고 많이 밖으로 나다녔지만 나가지 않는 때는 학교에서 학생들과 같이 자고 먹고 같이 일하고 배우는 것이었다. 설립자인 동시에 교장이요, 선생이요, 사무원이며 사환이기도 했고, 또 같이 배우는 학생이기도 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남강과 같은 거상이면서 교육에도 뜻을 둔 독지

가가 늘어나 유초중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사립학교에 투자하고 있지만, 정말 학생들을 내 자식같이 사랑한다면 공익적 차원의 교육 정신을 드높이 가다듬을 수 있도록, 남강에게서 많은 것들을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남강은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교육과 산업’이라는 두 가지를 늘 염두에 두고 있었고, 특히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였다.

첫째, 개화사상이다. 남강의 청년시절의 사업도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없는 사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이루는데 있었다. 그런데 차츰 나이 들어 오면서 저들과 다른 것 두 가지를 생각하였다. 하나는 우리 백성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천민 또는 가난뱅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올바른 세상은 혁명이나 단순한 장사 길로 올 것이 아니고, 유기공장의 그릇 만드는 공정마냥 사람 자체가 새로운 그릇이 되어야 하는 일이었다. 사람 자체가 새로운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교육사상이 지금도 수긍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양반이 되어야 한다는 평소 남강의 민족에 대한 바람이 아마도 민족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지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민족이 개화되어 새로운 사람, 새로운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민족교육 사상은 과히 현대에도 긴요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남강의 개화주의는 세 가지 면이 나타난다(김기석, 1964: 75). 첫째는 겉에 나타난 모양을 바꾸는 일이다. 머리를 깎고 긴 담뱃대를 버리는 일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는 생활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히 일하는 일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는 마음을 새롭게 갖는 일이다. 내 사익을 물리치고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일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므로 남강의 개화주의는 신기함을 세우고 새것에 취하는 일이 아니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힘과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운동이었다.

둘째, 양반이 되기 위해서이다. 남강의 어릴 때의 꿈은 양반이 되는 것이었다. 과거에 급제하여 집 앞에 솟대나무를 세우고 양반 행세하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한다. 남강이 양반이 되고자 한 것은 사회적 천시를 면하고자 함에서 비롯된다(함석헌, 1988: 14). 남강이 어릴 때 본 임구성도 군수의 직함을 사서 양반이 되었던 사람으로, 의주에 기와집 아흔 아홉 칸을 지었으며 조상의 산소를 능처럼 만들었다. 그러나 남강은 그와는 달랐다. 나중에 국내 제일의 거상이 되어서도 큰 집을 짓거나 조상의 산소를 꾸미지 않았고 오로지 민족 전체가 양반이 되는 길을 찾기 위하여 모든 재산을 오산학교에 투자하였다(김기석, 1964: 30). 남강의 양반 정신은 개인적인 영달 차원이 아니었으므로 그런 양반 되려는 욕망은 그를 교육자가 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남강은 그러한 생각을 자주 밝혔다. 특히 오산학교를 세우면서도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을 세계적인 양반으로 만들기 위해서” 라는 표현을 자주 하였으며, 이를 ‘민족 양반론’ 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서광일, 1988: 278).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힘에 눌리는 것을 보면서, 그는 점점 나라 사이에도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양반나라와 천민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을사보호조약이 맺어지면서 그는 우리나라를 양반나라로 만들기로 작정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가 생각한 민족운동이요 민족교육정신이자 민족교육 사상이라 볼 수 있다. 그런 오산의 교육정신은 교가에서도 구구절절이 메아리치고 있다.

1. 네 눈이 밝구나 엑쓰빛 같다.

하늘을 꿰뚫고 땅을 들추어



온가지 진리를 캐고 말련다.  
네가 참 다섯뫼의 아이로구나.

2. 네 손이 솔갑고 힘도 크구나.  
불길도 만지고 돌도 주물러  
새로운 누리를 짓고 말련다.  
네가 참 다섯뫼의 아이로구나.

3. 네 맘이 맑구나 예민도 하다.  
하늘과 땅 사이 미묘한 것이  
거울에 더 밝게 비치는구나.  
네가 참 다섯뫼의 아이로구나.

4. 네 인격 높구나 정성과 사랑  
네 손발 가는데 화평이 있고  
무심한 미물도 다 믿는구나.  
네가 참 다섯뫼의 아이로구나.

오산학교는 설립자인 남강의 실천공행을 모범삼아, 이 교가에 담긴  
오산정신과 남강의 교육정신에 의해 발전해 갔던 것이다.

오산학교의 교훈이 바로 남강의 정신 또는 교육사상인데, 이는 두 가  
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경(敬), 애(愛), 성(誠)’의 정신이다(김선양, 1988: 175). 후  
일 신앙인이 된 남강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스승을 공경하며 즉, 위대

한 분을 경외하고 동경하여 본받고자 하는 지극한 마음씨를 갖는 것이 배우는 자의 첫째 과제라 하여 몸소 그의 교육정신을 실천함으로써 교육적 영향력을 갖추게 되었고(경), 애의 정신은 먼저 남강의 혼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민족애와 나라사랑으로서 합방이 되어서도 끝끝내 고국 땅을 지키고 독립 쟁취를 위한 교육 사업을 계속했으며, 그의 지극한 학생사랑의 정은 학생들에게 주는 바른 교훈과 옳은 권유에서 볼 수 있었고 또, 학교사랑의 단면은 자기 재산을 모두 털어 바쳤다는 사실이며(애), 진실하고 성실하게 거짓이 없이 살아감으로서 어려운 일을 내가 먼저 행하고 타인까지도 이끌고 나아가자는 것(성)이 남강의 교육정신이요 오산 정신인 것이다. 이 정신은 오늘날까지 오산학교의 교훈인 ‘사랑, 정성, 존경’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둘째, 민족운동의 인재 양성이자. 즉, 나라를 지킬 지도자를 길러 독립을 쟁취하는데 교육의 목적을 둔 것이다. 이 사상은 후일 오산학교가 독립운동의 중심지가 되고 졸업생들이 그 핵심이 되었으며, 민족을 보다 나은 국민으로 개조시키려는 그의 의지와 일치하고 있다. 그 당시 졸업생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일본 정부와 결탁되지 않으면 출세할 수 없었던 행정관리나 정치가는 없었던 대신 독립운동가, 교육자, 사상가, 종교인, 의사, 군인 등이 많은 것을 볼 때 그가 원했던 인재가 권력이나 재물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라의 독립운동과 나라를 지키는 지도자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많은 졸업생들이 그에 의해서 교사로 천거된 것은 민족운동에 쓸 인재 양성을 위한 그의 교육 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산학교는 민족 간부 양성을 목표로 세워진 학교이므로 민족정신이 교육의 소중한 줄기이었다. 이 민족정신은 단순한 민족 감정이 아니었다.

오산에서 가르친 민족정신은 어디까지나 민족의 영광을 바라보는 민족 정신, 내 자신의 덕과 지혜와 힘을 길러 나라에 봉사하자는 민족정신이 었다(김기석, 1964: 121).

일제의 모진 압박 속에서 오로지 우리 민족의 혼을 일깨우고 지키면서 민족의 영원한 혼이 충만된 인재양성에 모든 것을 다 바친 남강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참지도자요 영원한 스승의 귀감임을 새삼 느끼게 된다. 조진석(1973: 81)은 오산학교 재학 중 가장 인상 깊은 선생의 가르침은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장래지도라고 말하면서 그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졸업식이 가까워질 무렵이면 선생께서는 졸업생 4,5명씩을 당신 사랑으로 오게 해서 칩식을 같이 하면서 장래문제를 의논해주셨다.

선생께서, “너희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과 지나칠 때, 그 사람이 남자일 때와 여자일 때 기분은 어떠냐?”라고 농담을 하시면, “기분이 다르다”, “기분이 같다”는 등 학생들의 답변이 구구할 때, “그야 기분이 다르지, 솔직해야 돼.” 하시고선 그 밤의 담화가 본론으로 들어간다.

남강 선생은 한 학생 한 학생을 유심히 바라보시면서, 내가 그동안 관찰한 바로 너는 이런 점은 고쳐야겠고, 이런 태도는 좋았다는 등 학생들의 성장과정을 면밀히 살피신 말씀과 아울러 내 생각으로는 이런 직업이 네게 좋겠다는 등, 학생들의 장래문제, 우리나라가 처한 현 시국, 동서고금 성현들의 말씀 등 이러한 선생과 제자의 담화는 겨울밤이 짧을 만큼 그칠 줄을 모른다. 밤이 이슬해지면 선생은 결론을 내리신다.

“우리나라가 왜놈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은 첫째 우리 겨레가 무식해서요, 둘째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힘이 약해서야! 너희들은 왜놈을 원망하기 전에 우리의 이 점을 잘 알고 장차 나라를 독립시켜야 해. 졸업 후에도 부지런히 배워서 우매한 겨레를 깨우치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해.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보아 너희들은 목사나 교원이나 의사나 변호사가 되는 것이 좋아. 목사가 되어 우선 민중을 깨우치고, 교원이 되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훌륭한 인재로 기르고, 의사가 되어 무지와 가난으로 불쌍히 신음하는 겨레의 고통을 덜어 주고, 변호사가 되어 억울하게 누명쓰고 고생하는 겨레의 인권을 옹호해 주어야 한다.”

끝으로 들려주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은 숙연해지고, 최종의 학생들을 둘러보시며 손을 잡을 때, 우리들의 가슴 속에는 굳은 의지가 용솨음쳤던 것이다.

그리하여 김도태를 비롯한 많은 인사가 교육자로 활약하였고 백인제와 같이 의사로서, 주기철이나 한경직의 경우와 같이 목사가 된 이들, 그 모두가 다 남강의 애국하는 정신에서 나온 가르침의 결과이리라(김혜경, 1984). 남강의 교육사상은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정치한 이론은 없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그의 민족을 위한 헌신과 실천을 통한 솔선수범 하는 모습은 어떤 이론적인 교육보다도 더 많은 감화를 주고 있다. 그의 교육사상은 우리 민족이 참사람의 그릇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가르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 생각한 것이었으며, 깨달은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정신이었다. 남강은 오산학교의 교훈으로 내려오는 ‘경, 애, 성’의 정신으로 민족이 개화되고 나아가 민족운동의 인재양성을 이루

도록 그의 모든 교육적 열정을 쏟았다.

“겨레의 광복을 위해 힘쓰라. 내 유해는 땅에 묻지 말고 생리 표본을 만들어 학생들을 위하여 쓰게 하라.”는 유언을 받들어 영구를 경성 대학 부속병원으로 옮겨 생리표본으로 만들고자 해부하여 표본제작이 완성단계에 이르렀을 때, 총독부로부터 돌연 생리표본 허가가 취소되었다. 총독부에서는 남강 정신을 두려워했던 터라 선생의 유해가 생리표본으로 오산학교에 보존되면 산 남강 못지않게 생리 표본 된 남강이 더 두렵게 생각되었기 때문이라(조진석, 1973: 88). 오산학교는 일제의 여러 가지 억압과 간섭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민족정신에서 우리나라의 혼을 심어주어 수많은 애국지사 와 민족의 역군, 독립운동의 동량을 길러내었다.

#### 4. 맺는 말

오늘날 가정교육의 부재 또는 문제는 내 자식을 어떤 인간으로 키우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없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모범적 언행이 부족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다산은 18년간 유배생활을 하면서도 자식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였다.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수단은 서간과 가계였는데 다산은 이를 통하여 자식들과 대화하고 마음을 전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 소개된 서간과 가계는 다산이 유배지에서 자식들을 교육한 내용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역경 속에서도 자식교육에 열성을 기울였던 아버지 다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올바른 자식교육이 바로 행복한 미래를 여는 열쇠이자 천금보다도 더 큰 자산을 이루는 밑거름이 된다는 다산의 가정

교육철학은, 시공을 초월한 어버이로서의 마음일 것이다. 유배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식들에게 희망을 북돋우는 편지와 훈계, 다산이 직접 자식교육에 심혈을 기울인 그의 교육방식은 오늘을 사는 모든 부모들에게 귀감이 된다.

다산은 유배지에서의 시련을 딛고 실학을 집대성하여 우리나라 오천년 지성사에 획기적 기여를 하였다. 다산의 『목민심서』 예전편 교육영역에 나타난 교육사상에서 교과와 생활교육 개선의 주된 내용을 보면, 수기치인의 덕이 있는 수령이 교육으로 부국안민 하게 할 것을 염원하는 애민사상이다. 교과교육영역에서는 부국양민교육인데, 이에 첫째, 교육복지의 민생교육이다. 만민이 각자 처해진 입장을 살리는 천직의 전문화를 도모하여, 당시 한량처럼 놀고먹는 유생들에게 기술인으로 전업시켜 일을 하도록 함으로써 부국양민을 기도하였다. 둘째, 국학강화의 애국교육은 국사, 국문학, 국토지리, 국방, 국세 등의 분야를 포함한 과거 실시를 기도하였다. 셋째, 수신치민의 교육입국이다. 자라나는 동몽들에게 수신치민의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입국사상이다. 생활교육영역에서는 양민화교육인데, 이에 첫째, 백성들을 교화해서 좋은 풍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오륜 행실의 덕행 교육 강화이다. 둘째, 예의교육인데 부모는 자(慈), 형제는 제(悌), 자는 효(孝)를 실천하여 만민이 모두 귀하게 되는 것이다. 다산의 교육사상의 기초 역시, 각자 처해진 입장에서 각 개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능력별 개성교육의 역량을 증진하는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현대의 우리 대학교육에서 특성화 및 전문화를 통한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초석이 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사 등의 국학 진흥과 수신 치민의 지도자 요구, 인성교육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역시 다산의 교육개선사상

에서 논의된 것을 볼 때, 『목민심서』의 독서 가치는 지금도 크다.

“일생을 남을 위하여 살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남강 이승훈”이라는 그의 비문에 새겨진 표현은 남강의 일생을 잘 함축하고 있다. 남강은 일제강점기 구국의 길은 인재양성이 그 첩경임을 믿고 오산학교를 설립하여 그의 모든 것을 다 바쳤다. 그가 오산학교를 설립한 것은 민족을 위해서요 그가 기독교 신자가 된 것도 민족을 위해서였을 만큼 그는 철저한 민족주의자가 되었다. 남강에 있어서 교육과 민족주의 운동은 둘이 아니라 하나요 별개의 것이 아닌, 교육 즉 민족독립 운동이었고 그것은 바로 민족교육사상으로 발전하였다. 남강의 일생을 지배한 삶의 원동력은 경, 애, 성의 3대 정신이었다. 그는 이 3대 정신의 바탕위에 민족교육사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3대 정신과 민족주의 사상이 한데 어울려 오산학교, 신민회, 제주도 유배, 105인 사건, 기미독립선언, 민립대학설립운동 및 대이상향 건설 등을 통하여 한결같이 민족을 위한 삶을 살았다.

남강의 제주도유배 당시에 그 곳에 많은 학교가 설립되고 민족을 생각하는 일꾼들이 생겨난 것도 바로 그의 영향을 받은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남강 교육사상의 기저를 이룬 것은 유교와 민족주의 사상과 기독교사상이었다. 남강은 교육이념을 국가와 민족의 독립을 마련할 수 있는 건전인격형성에 두고 있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덕스럽고 밝고 힘 있는 사람이 되기 전에는 참된 영광이 올 수 없다”고 외쳤던 남강은 민족의 광복만을 바란 것이 아니고 민족성의 광복까지도 염원한 민족교육사상가였다. 건전인격의 훈련내용으로 체육·덕육·지육 및 1인1기의 기예교육을 강조하였으며, 교육방법으로는 모범에 의한 실천교육으로서 스스로 행하면서 배우고 가르치는 교학상장의 본보기 교육

법이였다. 남강 교육의 특징은 민족의 사명을 자각하여 교육을 구국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국가의 보존과 민족의 독립도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어 민족의식을 기르고자 한 점이다. 남강의 교육사상에 나타난 민족주의 의식, 지행합일의 실천주의 교육 및 학교교육과 산업의 협동을 통한 산·학 일체의 교육은 현대 우리 교육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남강은 제주도 유배 이후 일제의 질곡 속에서 한 번도 일제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산 인물로서 교육을 통하여 민족의 자립·자조·협동을 가르치고 실천한 민족의 스승이었다.

#### 참고문헌

- 김기석(1964). 남강 이승훈. 서울: 현대교육총서출판사.
- 김도태(1950). 남강 이승훈전. 서울: 문교사.
- 김봉남(2006). 다산 시에 함축된 내면의식의 변모양상.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김상홍(1998). 다산의 자녀 광명(曠銘) 연구. 한문학논집, 제16집, 295-328.
- 김상홍(2008). 다산의 자식교육 세계 -유배지에서 보낸 시간과 가계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동양학 제44집, 113-135.
- 김선영(1988). 남강 이승훈의 교육사상. 서울: 남강문화재단 출판부.
- 박병현, 이한옥(2008). 목민심서를 통해 본 다산 정약용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보장연구, 24(1), 51-71.
- 박석무(2003).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한길사.
- 박석무(2005). 풀어쓰는 다산 이야기. 문학수첩.
- 서광일(1988). 1920년대 사회운동과 남강. 서울: 남강문화재단 출판부.
- 손인수(1971). 한국근대교육사. 서울: 연세대출판부.
- 송재소(2005). 정약용의 사상과 문학. 서울: 예문서원.
- 오산중고등학교편(1987). 오산 80년사. 서울: 오산중고등학교.
- 오산중고등학교편(1997). 사진으로 본 오산 90년사. 서울: 오산중고등학교.
- 윤사순(1996). 정약용의 인간관. 실학의 철학, 417-441.
- 이교현(2001). 남강 이승훈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진숙(2008). 다산 정약용의 자녀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 민(2007). 다산 어록 청상. 서울: 도서출판 푸르메.
- 정약용(2008).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박석무 편역, 서울: 창비.
- \_\_\_\_\_(2002). 여유당전서. 한국문집총간 281집, 민족문화추진회.
- \_\_\_\_\_(1970). 목민심서. 남만성역, 서울: 신화사.
- 정 영(2004). 다산의 목민심서에 나타난 교육개혁사상 연구.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조진석(1973). 나라사랑. 12집, 서울: 외솔회.
- 최관경(1990). 남강 이승훈의 교육사상. 논문집 제26집 1호, 부산: 부산교육대학 논문집편집위원회.
- 최효찬(2005). 500년 명문가의 자녀교육. 서울: 예담.
- 탁현숙(2007). 다산 정약용의 유배서간 연구. 석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함석헌(1988). 남강 이승훈 선생의 생애. 서울: 남강문화재단출판부.

